



오늘은 어린이 세상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 잔디밭에서 뛰어 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투표권 없는 청소년 “우리도 대통령 뽑는다”

### YMCA 전국연맹 주관 ‘만 18세 참정권’ 실현 위해 모의투표 4·5일 온라인 사전투표...광주 9일 기표소 설치 투표 10일 발표

촛불 집회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청소년들. 그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년 촛불을 높이 들었지만, 그토록 원했던 ‘만 18세 참정권’은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권이 없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 대통령을 뽑는 ‘모의투표’를 통해 ‘만 18세 참정권’ 요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의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만 안 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모의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한국YMCA전국연맹에 따르면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까지 4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선거인단 등록은 8일까지 가능하며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 학생증, 도서대출증을 가지고 오면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등록된 선거인단은 실제 대선 일정과 똑같이 4일부터 5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실제 대선일인 9일에는 전국 30개 도시에 투표소를 설치해 모의선거를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광주에서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위치한 청소년삶디자인센터(구 학생회관) 정문 앞에서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같은 날 여수와 순천에서도 각각 순천YMCA 회관, 거북선공원 야외무대 앞에서 오프라인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취합해 다음날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의투표에 나서는 동신대 조경학과 1학년 김민성(18)군은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며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었는데, 생일이 8월26일이어서 3달 차이로 대통령 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수완고등학교 1학년 권세진(16)양은 “청소년은 미숙해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며 “고등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은 “10일 모의투표 결과가 나오면 발표 후 당선자에게 직접 당선증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실제 대선과 결과가 같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수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발표만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의 희망인 ‘만 18세 참정권’이 속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대선 종반 광주·전남 선거사범 적발 잇따라

대통령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사범도 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선 후보 선거사무 관계자인 전남도의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정당정책 연구소에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선거 운동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참여자 15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위부터 5위까지 후보별 순위와 지지도 등이 포함됐지만, 허위 자료였다고 선거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유권자가 선거위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지원1동 남초등학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 유권자인 B(62)씨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찍었다.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들은 선거사무원 등은 A씨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선거위는 A씨의 사진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현재 대선 관련 고발사건 등 총 5건·6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선거위 고발이 3건·4명, 정당 고발이 2건·2명이다. 내사 중인 사건은 선거위가 수사의뢰한 1건 2명이다.

광주경찰도 이날 현재 총 4건·5명을 수사하고 있다. 1건은 정당 고발이고, 3건은 선거 벽보훼손 사건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표소 설치하기도 전에 투표 끝? 허술한 거소투표... 잇단 잡음

“병원 직원이 미리 거둬 전달”  
**허술·광주 참관인 이의제기**

광주·전남 병원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서 잇따라 부정투표 의혹 등 잡음이 나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소투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인 이상 거소투표 신청자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참관인 입회 하에 기표소를 통해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전에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치고 무더기로 직원들이 보관했다가 제출하는가 하면 선거일 투표 및 사전 투표와 달리 신분확인 절차가 아예 없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4일 전남도선거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거소투표소를 설치 운영한 화순 A병원에서 거소투표 신청인 42명 중 21명이 기표소를 통해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거둬들이는 한 직원이 무더기로 이를 참관인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선거위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신청인이 있을 경우 선거위는 병원 등 해당 시설에 기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투표도 기표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순 A병원의 경우 기표소 참관인 측 이의 제기로 화순군 선거위가 투표 행위에 불법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B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선거위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B병원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인 12명 모두 기표소 운영 전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말뚝한 상태로 이를

선거위 측에 제출했다. B병원 투표용지도 화순 A병원과 마찬가지로 참관인 입회하에 우편함에 넣어졌다.

문제는 고령의 환자나 치매 환자가 입원한 시설에서 참관인 입회 하에 기표소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측이나 제 3자의 투표 개입이 이뤄져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나 대선일 투표와 달리 시설이나 기관 등으로 배정된 투표용지를 들고 선거일이 투표한다는 점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아예 없어 대리투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기표소 참관인들의 주장이다.

이날 화순 A병원 기표소 참관인으로 나선 C씨는 “환자들의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라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제 3자가 환자들의 투표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0인 이상 거소투표 신청인이 있을 경우 기표소 운영 전 대리투표를 막기 위해선 기표 전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거위·화순군 선거위 관계자는 “시설장을 상대로 조사를 거쳐 절차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투표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참관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분확인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선거인은 총 116만6851명, 거소투표 선거인은 2539명이다. 전남은 총 선거인 157만1723명, 거소투표 선거인 6933명이다.

/김형호기자 khh@

## 술 취한 승객 전용도로 하차시켜 숨지게한 택시기사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택시기사 A(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10시37분께 승객 B(27)씨를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빙고출대로 한 자리에 하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를 찾던 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분께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과속한 승용차 운전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층간소음 소심한 복수... 잇단 차량 발로 차 파손

○...작은 층간소음에 윗집에 올라가 2차레 이상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자 화가 난 나머지 윗집 차량을 발로 차 파손한 아랫집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지난날 15일 밤 10시5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안모(73)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데 이어 차량의 앞, 뒤를 가리지 않고 발길질을 해 49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

○...안씨는 경찰에서 “8층 우리집에는 나와 아내 단 둘이 살고 있다. 어떻게 우리 같이 나이 든 노부부가 공공장소 뛰어다니는 수가 있겠느냐?”면서 “말로 하지 왜 애꿎은 차량을 부렸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최저가 4,278,000,000  
건물 753평 감정가 6,112,000,000

**담양 담양을 삼다리, 대로점**



토지 523평 최저가 311,000,000  
개발촉진지구 최고가 311,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최저가 321,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최저가 2,521,000,000  
건물 577평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